

특집논문

##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담론의 시각으로 본 차베스 체제\*

안 태 환\*\*

부산외국어대학교

안태환 (2012),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담론의 시각으로 본 차베스 체제.

**초 록** 포퓰리즘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애매하다. 그리고 대부분 포퓰리즘을 부정적 의미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히노 헤르마니와 같은 주류 포퓰리즘 담론은 지도자가 대중을 비이성적 대상으로 자신의 정치권력을 획득, 유지하기 위하여 대중을 지배하고 조작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에르모 오도넬과 같은 다른 주류 포퓰리즘 담론은 포퓰리즘을 어느 과도기적 단계에서 사회계급의 통합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는 모델로 인식한다. 많은 학자들이 포퓰리즘에 대해 애매하고 혼란스러우며 비결정적이고 수사의 과잉을 지적한다. 그러나 에르네스토 라클라우는 이들과는 매우 다른 시각에서 포퓰리즘을 해석한다. 그의 주장의 출발점은 “대중의 요구”이다. 대중의 요구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등가적 접합”을 통해 서로 연결된 복수의 요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의 80년대 말에 안드레스 베레스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해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왔던 대중은 단지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교육, 건강, 여성, 사회관계 등의 정치, 사회적 요구를 제기하며 거리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인다. 라클라우는 이런 대중의 요구를 “정치적인 것”의 의미에서 대중의 출현으로 생각한다. 이는 급진민주주의의 출현의 의미에서 배제된 대중의 출현을 “정치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랑시에르의 생각과 상응한다. 이 같은 학자들의 주장은 지도자와 대중 즉, 차베스와 “주민평의회” 등에 의해 추진되는 베네수엘라 혁명의 정치 사회적 경험에서 확인된다. 이런 의미에서 “카라카스”는 포퓰리즘과 급진민주주의가 만나는 차베스 체제 성립의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포퓰리즘과 계급투쟁 담론이 정치사회적인 것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방식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어** 카라카스, 대중의 요구, 급진 민주주의, 주민평의회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이 논문은 2012.5.25일 서울대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주최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국내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임.

\*\* 중남미 지역원 HK 연구교수.

## I. 들어가는 말

라틴아메리카의 소수 과두 지배계급은 19세기 후반부터 자유민주주의적 제도화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헤게모니적 도구로 삼았다. 즉, 19세기 후반부터 보수주의 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자유주의적 기득권 세력에 의해 라틴아메리카의 ‘라틴’ 화가 이루어지면서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주민들을 ‘내부 식민적으로’ 배제하는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장치가 바로 ‘자유주의적 제도화’였다. 이에 대해 다수 대중은 자신들의 공동체적 연대의 문화적 에토스(감성)에 기초한 요구를 받아들여줄 ‘다른’ 지도자(Caudillo)를 항상 찾아왔다. 즉, 포퓰리즘을 통해 자유주의적 제도화를 멀리하려는 사회, 역사적 유인의 맥락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항상 있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라클라우(2009, 28)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체제 자체가 이미 ‘배제’를 기본성격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배제를 둘러싼 헤게모니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차베스 체제는 91년 소련 붕괴 후 지리멸렬해진 전 세계 좌파 세력에게 아직 좌파는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사회영역을 시장, 이윤의 영역으로 만들어 식민화하고 개인을 소비자란만 호명하며 탈정치화 시킨다. 차베스 체제는 시장이 우위에 서고 국가와 사회를 포획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맞서 사회를 우위에 두고 국가와 시장권력을 통제하는 혁명이다. 차베스체제와 포퓰리즘의 상호 연관에 대한 분석은 베네수엘라의 구체적 역사, 사회적 맥락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은 누구보다 라클라우 자신이 강조하고 있다(Retamozo 2006, 102 재인용). 라틴아메리카는 16세기 이후 세계체제에 편입되면서 유럽의 주변부로서 종속적, 식민적 위치에 있으면서 자율적인 산업화에 실패한다. 그리하여 자생적인 중간계급 또는 시민사회의 형성이 빈약하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과두 엘리트/대중의 대치전선이다(Laclau 1977. De la Torre 1992, 386 재인용). 이와 다른 맥락에서 보더라도 라틴아메리카는 포퓰리즘의 대륙이다. 왜냐하면 “비근대적인 것”의 기술적, 지리적 동시성이 존재하는 대륙이기 때문이다(Germani 1977, 12). 따라서 국가를 근대적으로 동

일화된 발전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위에서부터 지도자가 중간계급 또는 대중계급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 포퓰리즘 담론의 인식이다. 이 같은 시각과 아래로부터 “대중의 요구”(Laclau 2005, 99)를 받아들여 ‘다른’ 지도자를 찾는 라클라우의 시각은 매우 다르다. 주류 담론은 이렇게 라틴아메리카 사회와 문화의 이중성이라는 사실을 두고 선협적으로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후진적인 것’을 물리쳐야 국가 발전과 민주주의의 제도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날카롭게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지만 철저하게 일직선적으로 근대성의 인식에 포섭되어있다.

상당수 포퓰리즘 담론은 포퓰리즘의 구체적인 정치행태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가림막이 될 수 있다.<sup>1)</sup> 그러므로 필자는 차베스 체제의 해석을 라클라우<sup>2)</sup>의 시각으로부터 시도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류 포퓰리즘 담론과 매우 다른 그의 담론이 라틴아메리카의 최근의 정치적 변화를 해석하는데 탁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주류 담론은 정치 분석의 하위적 카테고리 포퓰리즘을 다루지만 라클라우는 특히 현대 정치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과 도구임을 강조한다(Patruyo 2006, 169). 정통적인 마르크시즘의 계급 투쟁을 통한 유토피아 도래의 필연성을 강조하거나 자유주의적 선협적 국가 발전주의 담론과는 다르다. 특히, 라클라우의 포퓰리즘에 대한 문제제기는 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새롭게 유기적 이데올로기로 부상하는 “자유적 보수주의”(신자유주의)가 위계 서열적 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주체를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연쇄적으로

- 
- 1) 니콜라스 린치도 기존의 포퓰리즘 담론이 오직 권위주의적 연구주의적 요소들과만 연결시키고 그것이 가져오는 민주화의 과정을 무시한다고 네오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민주주의 과정의 광범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막는 이론적 진공의 기능을 오히려 네오 포퓰리즘이 맡고 있다(Lynch 2000. Gon- Gonzales 2007, 83-84 재인용).
  - 2)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현재 영국의 예섹스 대학의 교수인 그는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로서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이 그의 학문적 출발점이다. 아르헨티나의 좌파 정당(Partido Socialista)의 지도부에 소속되기도 했다.

등가화하며 “사회적인 것” 또는 “공공적인 것”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차베스 체제는 포퓰리즘적 정치형태와 동시에 “급진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라클라우는 “급진 민주주의”를 옹호한다(Laclau 2009, 122).

차베스 정권과 포퓰리즘에 대한 선행연구로 김은중(2009)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의 시각이 아니라 ‘참여와 주인공이 되는’ 민주주의로 이해하고 있다. 김창근(2010)은 베네수엘라 혁명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홍옥현(2006)은 주류적 시각에서 차베스 정부를 전형적인 대중주의(포퓰리즘)적 정부로 인식하고 있다. 김달관(2007)은 페론과 메넴의 포퓰리즘을 비교하고 있다. 곤살레스(Gonzales 2007)는 페론이즘을 대중과 과두지배계급 사이의 대립으로 보고 있다. 데 라 토레(De la Torre 1992)는 페론이즘을 가난한 대중의 출현과 연관시키고 있다. 위의 글들을 참고하여 주류 포퓰리즘 담론과 라클라우 담론의 차이를 부각시킨 후 차베스 체제가 가지는 포퓰리즘의 성격과 급진 민주주의의 함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 II. 주류 포퓰리즘 담론과 라클라우 포퓰리즘 담론의 차이

주류 포퓰리즘 담론은 대중을 객체로 이용하여 지도자가 권력 획득과 유지를 원하거나 또는 국가발전을 위해 과도기적 단계에서 대중을 ‘동원’한다고 해석한다. 이에 비해 라클라우의 담론은 지도자와 대중이 하나 되어 ‘현상유지’를 깨뜨리는 변혁을 가리킨다. 우선 주류 포퓰리즘 담론의 선구적 흐름을 살펴본다면 히노 헤르마니(Gino Germani)<sup>3)</sup>를 들 수 있다. 그는 페론이

3) 헤르마니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파시즘 정권을 피해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학자로 페론이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저서로 Gino Germani(1962), *Política y sociedad en una época de transición*, Gino Germani et al.(1977), *Populismo y contradicciones de clase en Latinoamérica*, Gino Germani(1978), *Authoritarianism, Fascism and National Populism* 등이 있다.

즘을 해석하면서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가난한 대중이 비이성적인 아노미 상태에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 의해 조작, 동원되었다고 주장한다(Viguera 1993, 51 재인용). 포폴리즘을 극복해야 할 병리적 현상(Canovan 1999, 2)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상/병리의 이분법적 시각은 미셸 푸코가 정확히 인식했듯이 위계 서열적 또는 식민적 시각의 폭력적 인종주의가 근대성의 핵심임을 드러낸다. 유럽 중심적 근대적 자유주의 정치 행태/포폴리즘을 마치 정상/병리의 이분법으로 대체시키는 것이다.<sup>4)</sup> 이런 선형적 차별과 배제의 인식은 현재까지도 주류 포폴리즘 담론이 포폴리즘 체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중요한 흐름을 만든다. 다시 말해 포폴리즘을 지도자 개인의 권력 획득과 유지를 위해 “내용이 비어있는”<sup>5)</sup>것을 정치적 “수사”<sup>6)</sup>로 채우는 행태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라클라우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언술의 비어있음 또는 비결정성’은 결합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실제 사회적 현실이 그러했기 때문이

4) 사회과학은 플라톤 이래로 “정치적인 것”을 거부하고 “좋은” 또는 “바르고” 정리된 사회의 경영적 행정을 중시하는 노력의 공범으로서 유럽의 철학적 반정치의 전통에 참여하고 있다. 대중(pueblo)의 이름은 이런 전통 속에서 잘 정리된 사회를 이루는데 커다란 장애로 여겨져 왔다. 19세기의 “군중의 심리학”에서 대중(masas)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문제이었다. “일탈되고”(aberrante),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정치적 현상으로 본 것이다. 대중을 이성의 병리적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여 여성, 광인들, 야만인들, 아이들, 알콜 중독자와 동렬에 놓았다. 이리하여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patológico)사이 에 어느 정도 뚜렷한 경계를 세웠다. 특히 후자는 전염성이 강해 항상 전자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했다(Marchar 2006, 39).

5) 라클라우에게 “비어있는 기표”는 핵심적 개념이다. 비어있음으로 인해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것이다. 보편자는 비어있는 자리, 특수자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이지만 바로 그 비어있음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구조화/탈구조화에 일련의 결정적 효과들을 산출하는 공백이다(Laclau 2009, 93). 최종심금에서 선형적으로 결정되는 총체성이 없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서로 다른 “차이”들의 상호작용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체성과 총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배제”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배제를 위해서는 서로 동질화되는 움직임이 있게 되어 ‘차이’의 흐름과 ‘동질화’ 사이에 항상 긴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완전함에 이르려는 총체성은 도달이 “불가능하나 필요하게” 된다. 이리하여 부분성이 총체성을 재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헤게모니’이다(Laclau 2005, 93-95).

6) 헤게모니가 선형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므로 급진적 성격을 가지게 되고 개념적 수준보다 감성적 수준이 매우 중요하고 ‘수사’의 비문자적 형상이 중요하게 된다 (Ibid., 95-96).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수사’도 부대현상이 아니고 어떤 개념적 구조도 수사적 수단에 호소하지 않고 내부적 일관성을 가질 수 없다”(Laclau 2005, 91)고 주장한다. 우리는 언술 또는 연설이라고 하면 말하기 또는 글쓰기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기능주의적 시각일 뿐이고 실제로 정치인의 언술과 연설은 그를 통해 ‘사회관계’가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클라우는 기능주의적 합리성의 시각이 아니라 포퓰리즘을 ‘정치적인 것’(lo político)의 존재론적 구성과 연관된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Laclau 2005, 91). 여기에서 라클라우와 자크 랑시에르의 담론적 연결이 필요하다. 즉, “정치적인 것의 새로운 가능성의 출현” 또는 “억압당하던 대중<sup>7)</sup>의 출현”으로, 또는 급진 민주주의의 발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곧 복수의 사회적 요구를 제시하는 집단적 정치적 주체의 구성을 전제한다(Laclau 2005, 150). 그러므로 라클라우는 포퓰리즘을 비정상적인 것, 일탈적인 것, 조작과 선동으로만 보는 시각을 거부한다. 그 대신 “포퓰리즘은 기존질서의 전복과 새로운 질서의 급진적 재구성을 추구”(Laclau 2005, 221)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대중의 사회적 요구가 이질적 요소들과의 “등가적 접합”(Laclau 2005, 98)과 대중을 억압한 ‘타자’와의 “내부적 경계선”(Laclau 2005, 99)을 만들면서 대중적 정체성이 어떤 담론으로 표현된다. 이를 “대중의 요구”라고 호명한다. 이로써 배아상태의 포퓰리스트적 구성이 이뤄진다(Laclau 2005, 99). 중요한 것은 그 대중을 억압한 ‘타자’와의 ‘내부적 경계선’이 반드시 있

7) 라클라우와 랑시에르에게 이때의 대중은 하층계급을 뜻하는 대중(plebeyos)이지 일반 시민으로서의 대중(pueblo)이 아니다 (Marchar op. cit., 55). 대중의 정의는 진보적 시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민중과 다르다. 물론 스페인어로 표현할 때 민중과 대중은 둘 다 pueblo로 쓰이나 전자는 좀 더 동질적이고 선형적인 개념으로 부르주아에 대립하는 것으로 설정된다면 후자는 스페인어의 masa와 같이 정형적 동질성이 선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막연하게 비정형적인 그들이 부르주아가 아니라 기득권층에 의한 공격이 있을 때 이에 저항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하면서 스스로 정체성이 형성되어가면서 대중(pueblo)이 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중’이라는 개념 설정은 보편적 입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역사성을 담보로 한다. 특히 1%와 99%의 대치전선이 분명해지고 있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신들의 “뭍이 없는”(랑시에르)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어야 하는 점이다. 이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대중의 요구가 있어도 포퓰리즘이 성립되지 않는다(Laclau 2005, 122).

또 다른 주류 포퓰리즘 담론은 이아니, 까르도주, 오도넬 등이 주장하는 것으로 포퓰리즘을 어느 과도기적 단계의 국가의 자본축적 모델로 인식하는 것이다(Viguera 1993, 54 재인용). 그런데 포퓰리즘의 이 국가발전 모델을 무너뜨리고 나타난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을 주류 학자들은 소위 “관료적·권위주의” 국가 모델로 호명한다. 즉, 30년대까지의 전근대적 지배체제로부터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제도화된 관료적·권위주의적(bureaucratic-authoritarian) 국가발전시기(군부 독재시기)에 이르기 전의 40년대에서 60년대 초까지의 과도기적 국가발전 단계를 포퓰리즘의 시기로 인식하는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좌파세력들도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을 봉건적 단계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발전 단계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아직 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이제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의 전 단계에 있으며 이 혁명이 일어나면 자본주의 발전을 자극하고 봉건적 정체를 깨트릴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도 민족 부르주아와 동맹을 추구해야 하고 과두지배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통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Laclau 1977, 15). 흐름이 이렇게 된 맥락은 마르크스주의 담론 자체가 역사의 필연적 발전이라는 근대성에 포섭되어 있었기 때문이다.<sup>8)</sup>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정치(la política)를 과도기적 단계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순간, 매번 라틴아메리카 정치는 뒤처지고 발전되어야 할 그 무엇으로 무의식적으로 인식된다. 이에 대해 라클라우는 포퓰리즘이 수입대체 산업화전략 또는 제 3세계의 국가발전 전략과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Mouzelis 1978 재인용). 또한 주류 포퓰리즘 담론은 포퓰리즘을 좌파/우파의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로 표현되는 다계급적 운동으로

8) 그러나 종속이론의 문제의식을 더욱 체계화 시킨 아니발 까하노와 월터 미놀로 등 근대성/식민성 기획 그룹의 학자들은 라틴아메리카는 이미 16세기 초부터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종속적으로 편입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월터 미놀로 (2010) 참조.

정의한다(Germani 1978, 95). 즉 포퓰리즘의 계급 통합적인 성격을 지적하고 있다. 바로 아르헨티나의 페론리즘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페론리즘은 아르헨티나의 정치지형에 좌파를 해체하는 결정적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되고 있다.<sup>9)</sup>

라클라우의 담론은 주류 담론과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첫째로, 전자는 기존의 포퓰리즘 담론과 달리 “대중”을 선형적으로 정의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의 출발점을 구체적인 역사, 사회적 차원에서 “대중”의 형성을 헤게모니적 시각에서 중시한다(Retamozo 2006, 109). 즉 대중은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상유지’의 전복과 변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좌파적 담론이지만 마르크스주의적 계급투쟁의 시각과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 차베스 혁명을 성공시킨 것도 전통적인 좌파 정당이나 노조 지도부에 의한 계급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소외되고 배제된 대중<sup>10)</sup>과 지도자의 결합의 방식을 통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조 지도부는 대기업가들과 함께 2002년 4월 반 차베스 쿠데타의 핵심 주동세력이었다. 헤게모니적 시각의 의미는 대중의 형성이 프롤레타리아계급과 같이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절과 접합을 통해 유동적으로 형성됨을 의미한다. 둘째로, 주류 담론은 대중을 정치 지도자의 “조작과 선동의” 대상 또는 객체로 보는데 비해 라클라우는 대중을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주체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주류 담론은 포퓰리즘을 국가발전과 연결시키면서도 포퓰리즘을 거부하고 들어선 군부독재정권을 “관료적·권위주의 체제”로 호명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9) 정통 페론리즘은 중산층과 노동자계급을 함께 포용하는 다 계급 또는 무계급적 성격을 가졌다.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다양한 좌파 정당이 미국대사관과 함께 페론리즘 정치세력에 연합했었다. 이와 같은 좌파정당의 페론리즘 합류는 그 후 아르헨티나 정치지형에서 좌파 정당을 취약하게 만든 ‘역사적 실수’ 이었다고 평가한다(Korol 2002, 2).

10) 스티브 엘너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좌파 정부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조직된 노동계급이 전위나 사회적 중심세력이 아니었고 비 프롤레타리아로서 체제에서 배제된 대중이 중심이었다고 한다. “교조적 노동계급 숭배 단호하게 거절,” 레디앙(2012.2.3.).



서 이를 국가발전의 패러다임과 연결하여<sup>11)</sup> 암묵적으로 권위주의 통치의 부정적 성격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포퓰리즘을 암묵적으로 국가발전과 구별시켜 포퓰리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넓히게 된다. 대표적인 학자로 까르도주와 오도넬(1979)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권위주의 체제가 등장한 것을 일직선적 역사관의 관점에서 “생산의 국제화의 시대 또는 수입대체의 쉬운 단계의 종말 이후에, 라틴아메리카 주변부에서 지배적 자본주의 시스템이 모습을 드러낸 정치적 구현”(Serra 1979, 99)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배적 자본주의 시스템이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가에 있다. 라틴아메리카가 저발전과 종속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산업화)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임금의 유지 또는 총 자본에 비해 총 노동의 약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권위주의 정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sup>12)</sup> 다시 말해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이 논리적 합리성을 가지는 필연적 결과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경우 차베스 등장 이전에도 오랫동안 경제의 국제화와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이 이루어지면서도 권위주의 정권은 존재하지 않았다.<sup>13)</sup> 중요한 것은, 수입대체 산업화시기에 실질적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생산성과 경제성장(국가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는 세계 자본주의체제에서 고립화되었

- 
- 11) 호세 세라(José Serra 1979)는 그의 논문 “산업화와 권위주의 체제 사이의 연결에 대한 세 가지 잘못된 주장”에서, 주로 브라질의 사례를 들며, 국가발전을 명분으로 내거는 관료적-권위주의 체제 담론에 대해 실제로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 12) 물론 까르도주(1979)의 경우, 권위주의 정권이 진행되는 데 따라, 아래로부터 억압 받는 사회세력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어 출현하면서 양자사이에 서로 충돌과 긴장이 유발됨을 인정하고 있다. Ibid., 100.
  - 13) 1989년의 ‘카라카스’로 붕괴된 폰토휘호 체제는 미국의 ‘예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권위주의 정권의 연속이 아니었다. 여기서 ‘권위주의’라는 표현은 비민주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 흔한 군부독재 정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과 같이 경제의 국제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군부독재 정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카라카스’로 표현된 대중의 생존권적 요구에 대해 90년대 중반의 진보적인 라파엘 깔데라 정권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 집행을 통해 사회적 공공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렇다고 깔데라 정권을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기 때문에 저발전과 종속에 빠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미 16세기부터 철저하게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발전이 이루어진 것인데 국가발전을 위해 국제화에 뛰어들다는 것은 모순이다. 다시 말해 수입대체 산업화 시기의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이들 학자들의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이에 비해, 라클라우의 담론은 국가발전 보다는 기득권에 의해 억압받아 온 “대중”의 출현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여기서 지도자는 이렇게 출현한 대중의 통합적 상징일 뿐이다. 여기서 대중은 자신이 출현하기 전에 기득권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배제된 사회 그룹을 말한다. 이렇게 배제된 그룹의 “정치적인 논리”의 출현이 바로 포퓰리즘이다(Laclau 2005, 150). 즉 기존의 “현상 유지”적 제도화를 변혁시키려는 것이다.

### III. 차베스체제는 포퓰리즘 체제이다

차베스 체제는 친 차베스 진영과 반 차베스 진영의 격렬한 적대적 대립위에 서있다. 그럼에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친 차베스 진영이 석유, 군부, 대중을 포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적 인상과 달리 빈곤계급만이 아니라 중간계급도 차베스를 지지한다. 즉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Lupu 2010, 26-27). 그리고 군부의 강제력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체제 변화로 이익을 잃은 기득권층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예를 들어,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유도 대부분의 군부가 차베스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인 위치에 있던 석유회사를 철저히 국유화시켰고 베네수엘라 경제전반이 석유에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오히려 급진적 체제 변혁을 실행하는 차베스 정부에는 매우 유리하다(Wilpert 2006, 9). 물론 많은 학자들이 차베스 정부의 석유에의 의존도를 비판하고 있지만(Lopez Maya 2009; Arenas 2010). 차베스에 대한 비판 중 특히 흥미로운 것은 차베스 혁명이 잘 조직된 노동자 계급에 기초하지 않고 그 대신에 조직되지 않고 국

가에 의존하는 대중 또는 소외되고 배제된 사회그룹을 중요지지 세력으로 하기 때문에 차베스정부를 석유에 의존하는 “볼리바리안 새로운 포퓰리즘” 정권으로 호명한다는 점이다(Hidalgo 2009, 79). 여기서 “새로운 포퓰리즘”이란 용어는 폄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바로 똑같은 이유 때문에 차베스 체제를 “급진 민주주의의 포퓰리즘 체제”로 호명한다. 차베스 체제가 ‘자유주의적 제도화’의 대의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체제로부터 소외된 평범한 대중의 요구를 급진적으로 수용하는 ‘급진적 포퓰리즘’(Laclau 2005, 221)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베스체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다양하게 탈자유주의적임과 함께 반 신자유주의적, 사회주의적, 그러면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급진화 하는 ‘급진 민주주의’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포퓰리즘과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조합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라클라우의 설명을 들어보자.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의 가장 중요한 정치형태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지지하는 정치 형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포퓰리즘 자체는 진보적이지도 보수적이지도 않다. 다만 어느 사회의 진보세력이 포퓰리즘을 구성할 수도 반대로 극우세력이 이를 구성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체제를 포퓰리즘이란 말로 단순하게 환원시킬 수는 없다. 포퓰리즘적이면서 동시에 다른 정치적 성격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Laclau 2009, 825)

포퓰리즘은 이데올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중”은 계급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표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현실적 사회관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Laclau 2005, 97). 다시 말해 대중 자체는 즉자적으로 어떤 계급적 지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사회관계의 유동성에 따라 매우 다른 정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히틀러를 지지하던 사회적 행위자도 ‘대중’이었고 오늘날 차베스를 지지하는 것도 ‘대중’이다. 그리고 주류 포퓰리즘 담론의 시각에서 보는 ‘지도자’의 부정적 이미지의 요소들을 차베스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의 정의 자체가 그렇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적 제도화' 보다는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한 지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신화적 추종, 대중에 대한 구어적 선동의 연설 등이 차베스에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차베스가 대중과의 직접적 대화를 위해 매주 일요일 티브이와 라디오를 통해 연설하는 “여보세요, 대통령”(Aló, Presidente)같은 프로그램도 지도자와 대중의 직접적 접촉이다. 로베스 마야(2005, 237-240)에 의하면 “차베스는 이제까지의 엘리트 담론에서 배제되어왔던 대중과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머가 많고 비형식적인 문화적 상징의 화법을 사용하고 특히 부패한 기득권층과 기존의 제도가 가져온 전통적인 주류적 가치에 도전하는 직접적이고 과단성 있는 어법을 사용한다.” 이런 차베스의 급진적 포퓰리스트 담론에 대중이 호응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Hawkins 2010, 32). 물론 차베스의 이런 거친 화법이 기득권층과 지식인들에게는 거부감을 준다. 그러나 차베스의 수사적 또는 선동적(?)연설이 중요한 맥락은 바로 담론에서부터 사회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Laclau 2005, 92). 즉, 복잡한 정치, 사회관계의 핵심을 간결하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포퓰리즘 담론이 수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과 지도자의 감성의 상응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어느 사회가 어떤 선형적으로 결정된 존재적 내용에 의해 통합된다면-최종심급에서 경제, 민중의 의식, 체계적 일관성 등-총체성은 엄격하게 개념적 수준에서 직접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므로, 체계 모니적 총체화는 급진적 임무가 요구된다. 즉 선형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므로 순수한 개념적 파악과는 매우 다른 의미화의 게임에 들어가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 감성적 차원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Laclau 2005, 95)

따라서, 포퓰리즘 담론을 단지 ‘수사’로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차베스의 선동적(?) 정치행태는 최근 2012년 5월 1일 ‘노동절’에 새로운 노동법에 서명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sup>14)</sup> 하지만 단순히 선동에 그치는 것은 아니

14) <http://venezuelanalysis.com/print/6962>.

다. 차베스의 연설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신자유주의’는 베네수엘라 헌법 조문에 들어있다.<sup>15)</sup>

## 1. “카라카스”: ‘대중의 요구’의 출현과 ‘내부적 경계선’의 구성

1989년 2월 28일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국제 통화기금(IMF)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협약 의향서를 체결한다. 그리고 동시에 갑작스럽게 휘발유 값 인상과 버스 요금 인상 및 생필품의 인상을 가져온다. 이에 대중의 생존권이 위협받자 카라카스 교외에 살던 가난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이게 된다. 이를 “카라카스”라고 부른다(Lopez Maya 2005). 그러나 베네수엘라가 사회경제적 위기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이미 80년대 초부터였다. 그리고 82년부터 비밀리에 차베스가 주도한 일부 군부와 민간의 접합의 운동단체인 볼리바르 200운동(MBR-200)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대중 즉, “깊은 베네수엘라”를 재현할 것을 추구한다(Lopez Maya 2005, 165). 이 같이 차베스를 구심점으로 아래로부터 사회 저변에 광범하게 퍼져있는 변혁의 감성은 89년의 “카라카스”시위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제된 대중이 “대중의 요구”를 하게 된다. 즉 80년대 말에 가까워지면서 서로 다른 복수의 요구들의 “등가적 접합”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광범한 대중의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 건강, 교육, 생산관계, 노동의 분할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자본주의 모델 자체에 대해 회의하고 항의하기 시작한다(Denis 2009, 1). 단순히 물가고에 대한 항의만이 아니라 교육, 건강, 주택<sup>16)</sup> 등 최저수준의 인간적 삶의 유지를 정부에

15) 헌법 제 73조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을 양보해야 하거나 그 권위를 초국가적 기관에 이전해야 할지도 모를 국제조약, 협정, 협약은 공화국 대통령의 제안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원 2/3의 투표 또는 호적과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 15퍼센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민투표에 붙여진다.”로 되어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김병권 외 2007, 430).

16) 집 없는 가난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택권을 보장하는 ‘도시토지위원회’(CTU)도 80-90년대 내내 자생적 사회운동으로 존재했고 1999년 헌법의 틀 안에서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원된다. 이 위원회는 2006년 현재 약 6천개에 이르는데 의사결정을 관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층 대중 스스로가 한다(Garcia-Guadilla 2007, 48).

요구한 것이다. 어떤 사회적 요구가 단지 개별적으로 파편화되어있는 경우를 라클라우가 “민주적 요구”(2005, 99)라고 호명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런 “민주적 요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서 투표 외에는 표출할 기회가 없다. 그러나 라클라우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체제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의해 민주적 요구가 기존의 체계로 투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 대중에 대한 배제 또는 약탈이 있었음을 상정한다(2005, 158). 이 같은 배제에 대해 대중이 거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98년에 당선된 차베스는 반 배제, 약탈(신자유주의) 노선을 분명히 한다. 다시 말해 차베스 체제의 출발점은 “카라카소”이다.

1958년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는 양당에 의한 모범적 의회민주주의의 정치 사회적 프레임인 “푼토 휘호” 체제가 수 십 년간 지속되어왔다. 이 같은 질 높은 민주주의의 유지는 동시대의 라틴아메리카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왔다. 이를 베네수엘라의 “예외주의” 담론이라고 한다. 그런데 80-90년대 내내 지배계급과 지식인을 포함한 중간계급이 배제된 대중의 불만을 인식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철저하게 “푼토 휘호” 체제의 제도화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양대 정당은 근대화가 빚어내는 내재적 속성인 ‘사회적 긴장’(Parker 2005)만을 부드럽게 관리하고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베네수엘라가 70년대 말까지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한데도 사회적 균열축이 파열되지 않은 것은 70년대 내내 석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최소한도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Lander 2007, 21). 그러나 80년대 초반부터 외채위기와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Irazabal and Foley 2010, 97). 왜냐하면 80년대에 들어와 가난한 대중 즉, “뭇 없는 사람들”의 배제를 기본 구조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농업의 황폐화였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국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농수산식품 수요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했다(Boudin 2006, 132). 그리하여 농업생산의 위축은 필연적으로 농지의 축소를 가져오고 많은 농지가 유희지가 되어갔다. 이로 인해 식품

가격을 위주로 한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영양 부족 등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 보우딘(Boudin 2006, 123)에 의하면 1997년 현재 상위 5%의 부자가 하위 5%의 사람들보다 약 53배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85%가 빈곤하고 67%가 극빈의 조건에 살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공식 노동에 종사한다. 이렇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카라카소” 이후에도 90년대 내내 크게 빈곤과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정책은 악화된다. 1990-1991년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의 사회정책 예산지출은 라틴아메리카의 평균인 10.1%보다 낮은 9%였다. 그리고 1996-1997년은 그 격차가 12.4%대 8.4%로 벌어지고 있었다(Parker 2005, 47). 이에 대중은 지속적으로 시위와 항의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89년부터 1998년 사이에 약 6천 번 이상의 대중의 항의가 있었다(Lopez Maya 2005, 90. Burbach and Piñeiro 2007, 181 재인용). 그렇지만 차베스 외에 이 같은 ‘대중의 요구’에 응답하는 정치세력은 없었다.

신자유주의 기획은 좋은 경제정책이 가장 좋은 사회정책이라는 비인간적인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 반면, 볼리바리안 대안 어젠다는 가장 좋은 사회정책은 대중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Chavez 1996. Parker 2005, 46 재인용)

집권 후 차베스 정부는 총예산 지출에서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지출 비율을 아주 높이고 있다.<sup>17)</sup> 베네수엘라 군부가 대중의 민주적 요구에 이렇게 민감한 것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다른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달리 베네수엘라는 군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동의를 가톨릭교회와 대중언론 매체와 버금 갈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군부가 정치 사회적으로 위기 시에 사회 계층적으로 약자의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에 충실해왔다. 그렇게 된 역사적 맥락은 19세기 말 내전의 평등주의적 성향 때문이다(Muller Rojas 2001, 113-146).

17) 예를 들어 2006년의 경우, 총 예산의 57%를 교육, 보건, 생산 지원 등 사회적 공공성 부문에 지출하고 있다. [www.rebelion.org/noticia.php?id=43079&titular=gobierno-desti](http://www.rebelion.org/noticia.php?id=43079&titular=gobierno-desti).

차베스를 위시한 일단의 장교들은 1992년 쿠데타를 시도하고 실패한다. 그러나 1992년의 쿠데타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기득권계급과 가난한 대중 사이에 대치 전선이 형성된다. ‘대중의 요구’를 통한 대중의 정체성(Laclau 2005, 97-103)이 구성되면서 신자유주의를 둘러싸고 이들 대중과 기득권의 “제도적 체계”(Laclau 2005, 99)사이에서 “내부적 경계선”이 형성된 것이다. 왜냐하면 차베스에 대한 지지가 곧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정도의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하는 소위 “차베스 현상”<sup>18)</sup>이 이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92년 쿠데타기도 실패 뒤에 차베스는 티브이 연설에서 “지금으로서는”이란 표현을 통해 배제된 대중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자생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모으게 된다(kozloff 2007, 53). 라클라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차베스는 “비어있는 기표”(2005, 93)를 채운 것이다. 그리고 차베스는 1994년에 석방되자마자 1982년부터 비밀리에 군부대중의 접합 운동으로 조직되었던 “볼리바르 200운동”(MBR-200)을 정치조직으로 변신시키면서 합법적 집권을 준비한다. 그리고 1997년에 정당 “제 5공화국 운동당”(MVR)을 창설하여 98년 대선에서 승리한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변혁적 대중과 군부의 접합을 추구한 사실이다(Lopez Maya 2005, 165-166). 다시 말해, 차베스 진영의 핵심은 지도자(차베스), 대중과 군부의 접합이다(Boscan Carrasquero 2010).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관계이다. 내부적 경계선은 지금도 뚜렷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야당세력(Elner 2006, 93)과 민영언론과 기득권 세력이 내부적 경계선 너머의 그들이다. 기득권 세력이 차베스 정부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지주의 경우, 차베스 정부의 농업, 농지 정책에 의해 유흥농지가 농민들에게 돌아갔다.<sup>19)</sup> 그리고 2012년 5월 새로 개정된 노동법에 대해 대기업가

18) 베네수엘라 대중이 차베스를 신격화할 정도로 지지를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차베스도 대중 연설에서 자신을 시몬 볼리바르와 그리스도와 비유하기도 한다(Eastwood 2007, 620-621).

19)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수입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고 식량 주권의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원주민 등의 소농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토지 소유자의 유흥



등 기득권층은 국제 노동기구에 제소하려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sup>20)</sup>

라클라우의 담론은 대중이 ‘사회적 주체’ 또는 ‘집단적 주체’로 출현함을 인식한다. 1989년의 “카라카소” 시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골 농민들의 저항이 아니라 대도시의 대중이 저항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카라카소’ 시위 직후에도 집단적 주체, 예를 들어 “동네 평의회”(Denis 2006, 2)가 조직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같이, 이미 1970년대에도 카라카스의 빈민가의 가난한 여성들은 스스로 공동체를 조직했다(Friedman 2000, Fernandes 2007, 99 재인용). 현재까지도 친 차베스 진영의 핵심적 집단적 주체는 바로 이 빈민가의 가난한 여성들이다.<sup>21)</sup> 대중이란 개념 자체가 도시화를 전제하는 개념이라면 도시 대중의 저항과 포퓰리즘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sup>22)</sup> 베네수엘라도 70년대 중반이후 농업이 피폐해지고 대규모의 도시화로 시골의 대중이 도시로 몰리게 된다. 이들 대중은 공동체 문화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도시 중산층 이상의 자유주의적 문화 지향과는 크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Lander 2007, 23). 즉, 포퓰리즘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클라우에 의하면, 포퓰리즘은 지도자의 개인적 카리스마도 아니고 국가 발전의 과도기적 성격도 아니고 정치적 논리로 이해한다. 정치적 논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일정한 대상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배제의 담론을 의미하고 그 포용과 배제의 기준은 사회적 제도의 변혁에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대중

---

농지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이들 가난한 원주민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차베스 집권 이후 농업 면적이 1999년-2007년 사이에 33.8%가 증가하였다(베네수엘라 기획개발부 2008, 37).

20) <http://www.el-nacional.com/noticia/33370/18/Fedecamaras-formalizara-ante-la-OIT>.

21) <http://venezuelanalysis.com/print/6950>

22) 예를 들어, 1930년대 페론주의 태동기에도 시골에서 대규모로 대도시로 이주한 기층대중 즉, “셔츠 없는 사람들”(descamisados)과 페론의 결합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당시 아르헨티나의 상류 기득권 계급 외에도 자유주의적 진보세력인 지식인과 중간계급도 자신들과 다른 문화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 기층대중을 무시하고 배제했던 것에 이들 대중이 분노했었다(Gonzales op. cit., 79).

적) 요구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곧 복수의 사회적 요구를 제시하는 집단적·정치적 주체의 구성을 전제한다(Laclau 2005, 150). 이것이 랑시에르가 언급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뭉 없는 자들”의 출현이다.<sup>23)</sup> 여기서 중요한 이론적 관점이 “정치”(la política)와 “정치적인 것”(lo político)사이의 구별”이다.

정치적인 것이란 이질적인 두 과정 즉 통치 과정(치안)과 평등 과정(정치)의 마주침이다. 치안은 인간들을 공동체로 결집하고 그들 간의 동의를 조직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정치는 아무나와 아무나 사이의 평등 전제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려는 실천들의 놀이이다. 이를 해방이라 부를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법적, 감각적 구성체계의 이탈 또는 단절을 말한다.(랑시에르 2008, 133)

우리가 보통 정치로 인식하는 것을 랑시에르는 치안으로 호명하며 “정치적인 것”은 기존의 법적, 제도적, 감각적 구성체계로부터 “뭉 없는 자들”이 이탈하여 “평등을 입증하기 위해” 새롭게 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감각적 구성체계로부터의 이탈”이란 의미는 자신의 권리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아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일상 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최근 차베스 정부는 새로운 미션사업으로 “큰 사랑”(Amor Mayor)미션을 통해 65세 이상의 고령자중 한 번도 연금을 받아보지 못했던 어부들, 주부들, 개인 노동자들에게도 퇴직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sup>24)</sup> 그리고 차베스 정부의 다양한 “미션”사업은 ‘대중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정부의 제도적 통로에 제기할 수 있도록 ‘참여적 시민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참여’도 이들 대중이 가져보지 못한 감각 체계임은 물론이다. 즉 배제의 반대말인 참여가 차베스 체제의 핵심어이다. 예를 들어, “동네 속으로” 프로그램은 단순히

23) 지배가 자신의 정당성의 감각적 확실성을 부과하기 위해 쓰는 감각적인 것의 나눔을 불일치하게 재편성하는 정치, 권력을 행사할 자격을 갖지 않은 자들의 역설적 권력인 민주주의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뭉 없는 자들”이란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어 아예 뭉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한다(랑시에르 2008, 18).

24) <http://www.rebellion.org/noticia.php?id=148636>

무료 진료의 의미 외에,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변혁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성’(ciudadania)의 틀 아래 조직화와 참여의 추구를 장려하는 총체적 활동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공공성의 강화와 지원의 의미로 이해된다 (Alayón Monserat 2005, 226). 즉, 랑시에르가 언급한 “감각적인 것의 재구성” 또는 “정치적인 것”의 출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중의 요구”는 선형적이고 추상화된 일반적인 의미의 대중의 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배제된 타자로서의 가난한 대중이 출현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등가적 접합”을 제도화 시킨 것이 2005년부터 시작된 차베스 정부의 “주민 평의회”이다. 주민평의회는 “풀뿌리 대중 조직과 국가원수사이의 잘 조직된 정치적 동맹을 통해 대안적 민주주의 심화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Gindin 2004, 2). 그리고 주민평의회는 ‘미션’(Misión), 조합운동 등과 상호 결합하여 특히 교육 및 의료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공성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가난한 주민들의 무료진료 미션인 “동네 속으로”와 문맹자 교육 미션인 로빈슨, 중등교육 과정 미션인 리바스 등은 모두 주민평의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다(Gindin 2006, 87). 이 모든 흐름이 바로 “등가적 접합”을 통한 헤게모니화이다.

헤게모니에 관해 말하기 위해서는 접합적 계기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대적인 접합적 실천들과 대결을 통해서 접합이 발생해야 한다. 접합이 등가현상들과 경계효과들을 상정해야 한다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헤게모니적 접합의 두 조건은 적대적인 세력들의 현존 그리고 그것들을 분리시키는 경계들의 불안정성이다.(라클라우 1992, 168)

베네수엘라 사회의 격렬한 정치적 대결을 자유주의적 시각 또는 현실사회주의의 시각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시 말해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들의 차이는 상당부분 베네수엘라 사회의 헤게모니적(포폴리즘적) 정체성의 구성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와 혼동하는데서 오는지 모른다. 예를 들어, 차베스는 과거 소련이나 쿠바 방식의 전면적 국유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통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볼리

바리안 혁명이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 정책이 실행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하다(김창근 2010, 175)고 주장하는 것은 정통 사회주의의 시각에서만 나올 수 있는 비판이다. 그리고 “볼리바리안 운동이 자본주의 사적 소유를 철저히 인정하는 포퓰리즘에서 출발하였다”는 김창근(2010, 145)의 주장은 주류 포퓰리즘 담론에 포섭되어 차베스 체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 포퓰리즘과 계급투쟁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많은 엘리트 지식인들이 차베스 혁명을 포퓰리즘으로 호명하지 않는 것은 포퓰리즘을 폄하하는 이유인 “대중의 거부” 때문이다. 이미 위계 서열화된 사회적 구조화와 제도화에 의해 “대중”을 구성하는 차별 없는 방식에 대한 경멸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Laclau 2005, 87-88).

그러므로 차베스 체제는 정통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 보다 포퓰리즘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맥락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장 전후의 역사적 경험은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대중의 요구’에 충실한 헤게모니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차베스 체제의 이데올로기는 ‘급진 민주주의’이고 이를 ”21세기 사회주의”로 호명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포퓰리즘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포퓰리즘적 접근과 계급투쟁적 접근의 서로 다른 인식방식의 큰 차이점은 전자는 “대중의 요구”가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sup>25)</sup> 어느 일정한 사회에서 헤게모니적 변화를 통해 유동성 있게 대중의 정체성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에 비해 후자는 인류역사를 지배계급(부르주아)과 피지배계급(프롤레타리아)으로 선형적으로 인식한다.

25) 지젝의 시각에서는 노동자계급은 헤게모니적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특권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사회적 위치로 인해 선형적인 정치적 행위자가 된다고 한다. 이런 인식방식을 그대로 동일하게 포퓰리즘에도 적용하면, 지젝에게 있어 포퓰리스트적 정치적 행위자인 대중은 적의 공격이 있기 전에 선형적으로 존재한다. 그리하여 대중이 먼저 적을 찾아 공격, 섬멸하려는 것이 사회정의를 회복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젝은 주장한다. 그러나 라클라우의 시각은 이와 반대로 먼저 적의 공격이 있고난 후 대중의 정체성 형성의 사전조건이 된다(Laclau 2008b, 14-15).

지적은 내가(라클라우) 계급투쟁보다 포퓰리즘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적은 너무나 불합리한 문제제기이다. 왜냐하면 이 지적은 포퓰리즘과 계급투쟁이 실제로 존재하는 두 개의 객관적 실체라고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두 개의 축구클럽 중에서 어느 하나의 팀을 선택한다든지. 그러나 대중의 개념과 계급투쟁에 대한 고전적 마르크시즘 개념은 사회적 정체성의 구성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방식이다.(Laclau 2008b, 14 강조는 필자)

특히 중요한 차이점은 포퓰리즘적 접근은 계급투쟁 담론에서처럼 국가기구를 중시하지 않는다.

완전히 국가 밖도 안 되고 완전히 국가 안도 해방적 정치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국가에 대해 영향을 끼쳐야 하고 사회적 항의가 발전되어야 한다. 베네수엘라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룩 했다고 본다. 차베스 체제는 현재(2009년) 몇 년 전보다 더 안정되었다고 생각한다.(Laclau 2009, 827)

예를 들어, 주민평의회는 현재 중앙, 지방정부 즉, 국가기구를 우회하는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중의 사회적 요구”의 수행을 위한 미션 사업과 조합운동을 위한 금융 지원에는 국가가 깊이 개입하고 있다. 또한 직장폐쇄의 사기업을 유상 몰수하여 국유화 시킨 후 노동자 공동경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략 산업부문의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생산수단의 사유화는 유지하고 있다. 이런 애매하고 경계적인 흐름에 대해 라클라우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 2. 탈 ‘자유주의적 제도화’: 포퓰리즘과 급진민주주의의 병행

차베스 정부는 2001년 11월 ‘탄화 수소법’을 비롯한 49개의 수권법(Ley Habilitante)을 통과시킨다. 석유공사를 재 국유화시키며 자본주의 체제를 과감하게 변혁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한다(Lopez Maya 2005, 264). 이에 대해 반차베스 진영은 자유민주주의를 깨트리는 독재자로 차베스를 비난한다. ‘자유주의적 제도화’ 즉,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는 근대성의 정치적 구현의 핵심적 제도화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라클라우는 회의적 태

도를 보인다. 왜냐하면 라클라우는 “(근대적) 정치의 주도권을 재구성하고 이론적 시각에서 정치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새롭게 만들려고” (Laclau 2008a, 146)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맥락은 오늘날 근대성의 정치철학에 기초한 패러다임이 붕괴하고 있는데도 자유주의의 틀 안에 머무르는 민주주의가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심각한 물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물음을 엘리트들은 할 수 없고 대중이 해야 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차베스도 1999년 집권하여 “다 죽어가는 이 헌법위에 선서 한다”(Eastwood 2007, 618 재인용)고 하며 곧이어 새로운 급진 민주주의 체제 건설을 위해 새로운 헌법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들어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베스가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여 급진 민주주의 체제 건설을 위해 국민투표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더라도 정당 민주주의, 또는 의회민주주의를 전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고 그 경계선에 있다는 점이다. 조희연(2010, 281-282)은 급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하나의 고정된 정치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계급적 각축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역사적, 현재적 구성물로 본다. 이 같은 시각은 차베스 체제를 헤게모니 구축의 포퓰리즘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과 서로 상응한다. 즉, 차베스 정권의 출현 자체가 급진 민주주의이다. 예를 들어 1998년의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차베스는 격렬하게 정당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제도화’와 이에 편승한 노조 지도부를 비판하는 연설을 많이 했다(Ellner 2007, 80). 그리고 차베스는 평범한 중견장교로 있다가 쿠데타에 실패하면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대중’ 으로부터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의 영웅이 된다. 왜냐하면 쿠데타에 실패한 ‘범죄자’가 되면서 자유주의적 법적질서로부터의 “외부”에 놓이게 된 것이 대중의 매력을 끌었기 때문이다(Laclau 2005, 156). 우리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만을 민주주의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차베스 체제와 같이 ‘주민평의회’를 통해 의회와 주정부를 우회하여 직접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시스템<sup>26)</sup>과 ‘재선

26) 주민평의회는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 건설 등의 대중의 요구를 아래에서부터 받아들여 직접 예산을 지방에 조직되어있는 ‘대통령 직속 대중권력 위원회’를 통해 제안한다(Irazabal and Foley 2010, 103).

금지'의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여 지속적인 집권이 가능한 차베스 체제를 거부한다. 예를 들어, 진보적 인사인 노암 촘스키도 “라틴아메리카 어디에서나 군사권위주의(Caudillismo)는 잠재적 위협”이라며 차베스를 비판하고 있다.<sup>27)</sup>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차베스와 대중이 권력을 공유한다는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 ‘대의’는 정확하게 민주주의의 반대말이었다(랑시에르 2006, 53). 랑시에르(2006, 74)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과두 지배제’(oligarquia)와 비슷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조금만 분출하도록 여지를 남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기다가 신자유주의는 그 열정마저도 개인의 쾌락으로 돌리고 대중이 ‘공공적인 것’에 아예 관심 없도록 만든다. 공공적인 것은 전문가들에 맡길 것을 요구한다. 이런 ‘자유주의적’ 제도주의(institucionalismo)가 포퓰리즘의 반대라는 라클라우(2009, 826)의 지적은 포퓰리즘이 기존의 “현상유지”적 제도적 질서와 단절하려는 흐름임을 보여준다(Laclau 2005, 156). 또한 거꾸로 자유주의적 흐름이 포퓰리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어나던 시기인 60-70년대는 ‘냉전’의 시기였다.

‘대중의 요구’를 수용할 때 지도자는 전체 사회의 이익과 일치함을 밝히고 그 의지에 대해 단순히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무언가를’ 덧붙여야 한다. 이 ‘덧붙임’이 지도자에 의해 대표되어지는 사람들 즉 대중의 정체성을 이루게 된다(Laclau 2005, 200). 이런 의미에서 베네수엘라 대중의 요구에 대해 새롭게 “주민평의회” 등을 덧붙인 차베스정부는 포퓰리즘 정부이고 동시에 급진 민주주의 정부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한 사회의 가장 아래의 약자들을 ‘타자’로 만들고 나머지 시민들은 전부 개별적으로 파편화되고 경쟁과 불안에 떠는 ‘소비자’로만 호명하는 체제이다. 하지만 차베스 정부는 시장의 논리를 거부하고 주민평의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한다.<sup>28)</sup> 결

27) 광재훈(2011), “촘스키, 암투병중인 ‘친구’ 차베스에 쓴 소리,” 프레시안(2011.7.4).  
 28) 예를 들어, 2012년 5월, 차베스 정부는 미란다주에 가격이 저렴한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중국의 도움으로 지어 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주민평의회 주민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http://venezuelaanalysis.com/print/6971>

국, 차베스 체제의 급진 민주주의<sup>29)</sup>는 대중을 배제하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넘어 대중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민주주의이다(Irazabal and Foley 2010, 97; Marta Harnecker 2008; Hawkins 2010; Burbach and Piñeiro 2007). 그 구체적인 수단은 ‘주민평의회’다.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대중을 ‘사회적 연대’에 기초하는 새로운 ‘집단적 주체’의 사회적 행위자로 만들려는 것이다. 즉, 아래로부터의 대중 동원과 연대성에 기초하여 더 평등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다(Burbach and Piñeiro 2007, 182). 또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저 강도’ 민주주의(Santos and Avritzer 2005, 36)를 ‘고 강도’ 민주주의로 급진화 시키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재발명해야 합니다. 소련에서 보았던 종류의 사회주의일수는 없고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시스템을 발전시키면서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련의 경험과 동일한 외곽이 될 국가자본주의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의, 기체나 국가가 아니라 인간이 모든 것에 앞서는 인간적 사회주의를 되찾아야 합니다.(Chavez 2005. Lebowitz 2008b, 1 재인용)

인간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의미는 마르크스의 코민주의의 유토피아를 말한다.<sup>30)</sup> 헌법 제 299조는 베네수엘라 대중의 “전반적 인간 발전”을 보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필요(요구)와 능력, 즐거움, 생산력을 높이는 데”(마르크스, Lebowitz, 2008a, 2 재인용) 있다. 이는 분명히 자유주의의

29) 베네수엘라 혁명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특성으로서는 의회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구조적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내부로부터’ 극복하고자 하는 지향 속에서 진행되는 혁명이라고 하는 점이다. 특히 기존의 소유와 분배구조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적 전복이 없는 방식으로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혁명 모델은 소련의 불쉐비키 혁명모델과 이 점에서 구별된다. 소련의 모델에서는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자체도 파괴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는 99년 제헌헌법의 제정에서도 보듯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대중권력의 확장이라는 방향에서 급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조희연 2009, 225).

30) ‘공산당 선언’의 초기 초안에서 엥겔스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과 힘을 완전한 자유 속에서 발전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조직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마르크스도 “협력 속에서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다(Lebowitz 2009, 42 재인용).



테제를 급진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바로 좌파의 대안은 “급진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더 확대, 심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Laclau and Mouffe 2006, 221-222)는 라클라우의 주장과 만남을 알 수 있다. 21세기 사회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연대”를 모두 중시하고 20세기 사회주의와 비교하면 특히 “자유”를 급진화 시키는 의미를 가진다(Wilpert 2006, 2). 그러므로 개인들로 하여금 ‘주인공적 참여민주주의’ 실험을 통해 자신의 자아실현을 스스로 체험하고 배우도록 하고 있다(Burbach and Piñeiro 2007, 184). 예를 들어, “미션”사업의 적극적 참여자들은 대부분 “볼리바리안 서클”, “도시 토지위원회(CTU)”, “주민평의회”에도 참여하고 있다(Hawkins 2010, 48).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삼중적 ‘타자’인 가난한 아프리카계 여성들이 의료 프로젝트인 “동네 속으로”미션과 중등 교육과정의 “미션 리바스”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가난한 여성도의 의사가 될 수 있는 꿈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동네 부엌”과 같은 소규모 자생적인 공동체에서 자신의 발전과 함께 공동체의 연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안적인 주체가 출현하고 있다(Fernandes 2007). 신자유주의의 ‘경쟁’에 기초하는 사회관계를 ‘연대’에 기초하는 사회관계로 변혁시키는 방법은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마르크스. Lebowitz 2008, 1 재인용)이라는 코뮌주의적 담론을 실천하고 학습하는 방식 외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실천은 ‘어소시에이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민평의회와 노동자 평의회에 체화된 혁명적 민주주의”(Lebowitz, 2008, 9) 즉, 급진 민주주의의 외에 없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다른 점은 중장기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포퓰리즘과 급진 민주주의의 접합이 있게 된다.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담론에서 강조하는 대중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들”-교육, 건강, 식품-이 다양한 ‘미션’ 사업들에서 실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중의 새로운 ‘집단적 주체’의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능력은 ‘주민평의회’에서, 그리고 삶의 여가와 즐거움과 생산력을 높이는 능력은 노동자 공동경영, 노동자 평의회, 조합운동 등에서 실험하

고 있다. 이 같이 차베스 정부의 제도적 변혁의 실험은 ‘대중의 요구’- 그 동안 담론구조에서 재현되지 못하고 배제된 자들의 요구<sup>31)</sup>-의 수용을 통해 새롭게 사회적 제도가 재구성됨을 의미한다(Laclau 2005, 150). 즉 민주주의를 급진화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급진화의 힘은 대중에게서 나온다.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궤적을 훑어 보면, 그 문화적 의식, 바로크적 에토스는 사회적 연대성과 사회적 주체성을 재구성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반 헤게모니 세계화의 도전을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정치적 문화의 힘은 대중의 경험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싹의 출현은 새로운 “자연법”-기층 대중을 포용하는 복합문화적, 탈식민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Santos 2008)

라틴아메리카의 대중은 서구에서 발달한 그러면서도 세계체제에서 ‘보편성’을 확보한 ‘개인’과 ‘시민사회’에 기초한 자연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한 새로운 자연법을 새로운 ‘사회적 주체성’의 실천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IV. 나가는 말

라틴아메리카는 어느 면에서 우리의 상식과 달리 ‘자유주의적 제도화’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이용되어왔다. 그리하여 ‘내부 식민적’으로 오랫동안 배제되어온 다수 대중은 자신들의 공동체적 연대의 문화적 감성에 맞는 지도자를 항상 찾아왔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주류 담론의 맥락에 따라 선행적 틀로만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의 정치형태에 접근할 경우 이들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성격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의 ‘출현’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민주주의의

31) 중요한 것은 70년대의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담론(1977, 196)에서는 “피지배 계급”의 헤게모니 투쟁을 강조하나 2000년대의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담론은 이들을 “대중”으로 호명하면서 전통적 계급 담론과 상대적으로 단절시키는 점이 차이이다.

유동적 헤게모니 구축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라클라우의 담론은 차베스 체제의 해석에도 상당한 이론적 적실성을 가진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차베스 체제를 독재적인 권위주의 체제로 평가한다. 그러나 정치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추구하는 체제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대중 전체의 생존권 확보를 넘어 개인의 자아발전을 중시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즉, 차베스 체제는 자유주의를 이미 상당히 포섭하고 있는 체제이다. 또한 “대중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차베스 체제는 급진적 포퓰리즘 체제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대중의 다양한 요구가 증가적으로 접합하면서 기득권층과 분명한 “내부적 경계선”이 출현하기 때문이다. 또는 그 체계 안에서 “뭉이 없는 자들”(소외되고 배제된 대중)이 출현하면서 기존 체계의 단절을 추구한다. 랑시에르에 의하면 이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적인 것”의 출현으로 이해한다.

베네수엘라에서는 80-90년대를 통해 가난한 대중의 항의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분출했다. 그러나 차베스 세력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정치세력은 이에 대해 무관심했다. 그리하여 대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푼토 휘호” 체제가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사회적으로 더욱 배제된 ‘대중’의 투쟁은 1989년 ‘카라카소’ 시위로 폭발한다. 이 시위는 라클라우가 지적한 “대중의 요구”로 볼 수 있다. 즉, 차베스 체제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기존의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가 곧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사회정치적 또는 관습적인 지배적 “감각적 나눔”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 구체적 전략은 “주민평의회”를 통해서이다. 주민평의회는 의회와 지방정부를 우회하여 주민들과 대통령 직속기관이 직접 소통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베네수엘라에서 삼중의 ‘타자’로 배제되어왔던 가난한 흑인 여성들이 미션사업과 주민평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아실현의 꿈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서로 다른 요구들이 증가적으로 접합되지 못하고 일부 사회그룹의 요구로만 남을 경우 “사회적 요구”에 지나지 않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급진 민주주의의 변혁은 좌파

정당이나 지식인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고유한 사회적 연대에 기초하여 새롭게 사회적 주체성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가진 대중의 정치문화의 힘에서 나온 것이다. 대중을 단순히 객체로 보고 지도자 개인에 주목하는 서구에서 발달한 주류 포퓰리즘 담론으로는 쉽게 포착이 안 된다.

라클라우의 기여는 계급투쟁이나 포퓰리즘이 존재론적 사회적 실체가 아니라 어떤 사회의 정체성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서로 다른 인식방식이라고 주장한데 있다. 그럼에도 아직 상당수 학자들은 기존의 현실사회주의의 계급투쟁의 시각에서만 차베스 체제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그러나 포퓰리즘의 시각에서 접근할 때 주민평의회, 미선사업등 차베스 체제의 전략적 사업들에 대한 의미부여를 더욱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기준에 없던 새로운 대안적 사회관계의 형식이 실험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 반대한다고 해서 곧바로 20세기 현실 사회주의만을 상상하는 것은 유럽 중심적, 근대적 인식론에 갇혀 있는 것이다. 즉,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최근의 라틴 아메리카의 반 신자유주의적 저항에 대한 해석은 사회주의/자본주의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인식론적 단절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선형적 인식의 전통적인 계급투쟁의 시각보다는 “대중의 요구”를 중시하는 유동적인 포퓰리즘의 시각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성찰이 요구된다. 차베스 체제가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기존의 그 어느 교조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중의 요구에 충실한 전략으로 ‘자유주의적 제도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상당부분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차베스의 급진민주주의가 ‘독재화’ 하고 있다는 비판적 흐름도 존재하고 있다.

## 참고문헌

김달관(2007),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 페론과 메넴의 비교 사례 연구」, 국제

- 지역연구, Vol. 11, No. 3, pp. 97-124.
- 김병권 외(2007),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시대의 창.
- 김은중(2009),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과 국가기능의 재편」,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2, No. 2, pp. 147-178.
- 김창근(2010),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혁명의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운동」, 마르크스주의연구, Vol. 7, No. 3, pp. 138-181.
- 베네수엘라 기획개발부(2008), 「혁명이 이룩한 성과-2천8백만의 인구가 사는 나라-」, 10월, pp. 1-44.
-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상탈 무페(1992), 『사회변혁과 헤게모니』, 김성기 외 역, 터. \_\_\_\_\_(2009), 「정체성과 헤게모니」, 주디스 버틀러 외,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박대진/박미선 역, pp. 73-130.
- 월터 미놀로(2010),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김은중 역, 그린비.
- 조희연(2009), 「환호와 위기 속에서 전개되는 베네수엘라 혁명, 그 성격과 함의」, 메이데이.
- \_\_\_\_\_ (2010), 「급진민주주의론의 정립을 위한 한 탐색」,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 7, No. 3, pp. 273-307.
- 자크 랑시에르(2008),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역, 길.
- 홍욱헌(2006), 「차베스 정부의 좌파 정책: 21세기 사회주의 아니면 임시 처방인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8, No. 2, pp. 49-76.
- Alayón Monserat, Ruben(2005), “Barrio Adentro: Combatir la exclusión profundizando la democracia,” *Revista Venezolana de Economía y Ciencias Sociales*, Sep.-Dic., Vol. 11, No. 3, Caracas: UCV, pp. 219-244.
- Arenas, Nelly(2010), “La Venezuela de Hugo Chavez: rentismo, populismo y democracia,” *Nueva Sociedad*, No. 229, Sep.-Oct., pp. 76-93.
- Boscan Carrasquero, Guillermo(2010), “Ceresole y la Revolución de Hugo Chavez: la relación Caudillo, Ejército y Pueblo,”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No. 25, Tarapaca: Univ. Arturo Prat, pp. 57-73.
- Boudin, Chesa et al.(2006), *Venezuelan Revolution*, New York: Thunder Mouth Press.
- Burbach, Roger and Piñeiro, Camila(2007), “Venezuela’s Participatory

- Soci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Vol. 21, No. 3, pp. 181-200.
- Canovan, Margaret(1999), “Trust the people!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olitical Studies*, XLVII, pp. 2-16.
- Cardoso, Fernando Henrique(1979), “On the Characterization of Authoritarian Regimes in Latin America,” David Collier(ed.), *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pp. 33-57.
- De la Torre, Carlos(1992), “The Ambiguous Meanings of Latin American Populisms,” *Social Research*, Vol. 59, No. 2, pp. 385-414.
- Denis, Roland(2006), “De los Consejos Comunales a los Consejos Autogestionarios, de Fábrica y de Defensa,” <http://www.aporeia.org/imprime/a22676.html>
- \_\_\_\_\_ (2009), “En Venezuela necesitamos una segunda rebelión antiburocrática e igualitaria,” <http://www.sinpermiso.info/textos/index.php?id=2810>
- Eastwood, Jonathan(2007), “Contextualizando a Chavez: el nacionalismo venezolano contemporáneo desde una perspectiva histórica,”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Vol. 69, No. 4, pp. 605-639.
- Ellner, Steve(2006), “Venezuela: Defying Globalization’s Logic,” Vijay Prashad & Teo Ballve(eds.), *Dispatches from Latin America*, Cambridge: South End Press, pp. 93-104.
- \_\_\_\_\_ (2007), “Trade Union Autonomy and the Emergence of a New Labor Movement in Venezuela,” Steve Ellner & Miguel Tinker Salas(eds.), *Venezuela*,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ing Group, pp. 77-98.
- Fernandes, Sujatha(2007), “Barrio Women and Popular Politics in Chavez’s Venezuela,”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49, No. 3, pp. 97-127.
- García-Guadilla, María Pilar(2007), “Ciudadanía y autonomía en las organizaciones sociales bolivarianas: los Cómites de Tierra Urbana como movimientos sociales,” *Cuadernos del Cendes*, Vol. 24, No. 66, Sep.-Dic., pp. 47-73.
- Germani, Gino(1977), “Democracia representativa y clases populares,” Gino Germani et. al., *Populismo y contradicciones de clase en Latinoamérica*, México: Era, pp. 12-37.
- \_\_\_\_\_ (1978), *Authoritarianism, Fascism and National Populism*, Transaction

- Publishers.
- Gindin, Jonah(2004), "Beyond Populism: The Venezuelan Revolution and the International Left," *Canadian Dimension*, Vol. 38, No. 4, pp. 1-5.
- \_\_\_\_\_(2006), "Chavistas in the Halls of Power, Chavistas in the Streets," Vijay Prashad(eds.), *Dispatches from Latin America*, Cambridge: South End, pp. 86-92.
- Gonzales, Osmar(2007), "Los orígenes del populismo latinoamericano- una mirada diferente-," *Cudernos del Cendes*, Vol. 24, No. 66, Sep.-Dic. 2007, Caracas: UCV, pp. 75-104.
- Hawkins, Kirk A.(2010), "Who mobilizes? Participatory Democracy in Chavez's Bolivarian Revolution,"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52, No. 3, University of Miami, pp. 31-66.
- Hidalgo, Manuel(2009), "Hugo Chavez's Petro-Socialism," *Journal of Democracy*, Vol.20, No.2, Johns Hopkins Univ. Press, pp. 78-92.
- Irazabal, Clara and Foley, John(2010), "Reflections on the Venezuelan Transition from a Capitalist Representative to a Socialist Participatory Democracy: What are planners to do?,"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7, No.1, pp. 97-122.
- Korol, Claudia(2002), "La Izquierda Argentina y su larga marcha," *Alternativa*, No. 15, Santiago: ICAL, pp. 1-6.
- Kozloff, Nikolas(2007), *Hugo Chavez*,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Laclau, Ernesto(1977), *Politics and Ideology in Marxist Theory*, London: Lowe and Brydone.
- \_\_\_\_\_(2005), *La razón populista*. Buenos Aires: Cfe.
- \_\_\_\_\_ & Mouffe, Chantal(2006), *Hegemonía y estrategia socialista*, Buenos Aires: Cfe.
- \_\_\_\_\_(2008a), "Reseña de Debates y combates por un nuevo horizonte de la Política," *Cuadernos del CENDES*, Vol. 25, No. 067, Caracas: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p. 146.
- \_\_\_\_\_(2008b), *Debates y combates*, Buenos Aires: Cfe.
- \_\_\_\_\_(2009), "Laclau en debate: Postmarxismo, populismo, multitud y acontecimiento(entrevistado por Ricardo Camargo)," *Revista de Ciencia*

- Política*, Vol. 29, No. 3, Pontificia Univ. Católica de Chile, pp. 815-828.
- Lander, Edgardo(2007), "Venezuelan Social Conflict in a Global Context," Steve Ellner & Miguel Tinker Salas(eds.), *Venezuela Hugo Chavez and the Decline of an "Exceptional Democracy"*, Lanham: Rowman & Littlefield, pp. 16-34.
- Lebowitz, Michael A.(2008a), "The Only Road is Practice," *Monthly Review*, June 2008, 1-10.
- \_\_\_\_\_(2008b), "The Spectre of Socialism for the 21st Century: Build it now!," *Link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ist Renewal*, <http://www.links.org.au>, pp. 5-14.
- \_\_\_\_\_(2009), "The Path to Human Development- Capitalism or Socialism?," *Monthly Review*, Feb., Special Supplement, pp. 41-63.
- Lopez Maya, Margarita(2005), *Del viernes negro al referendo revocatorio*, Caracas: Alfadil
- \_\_\_\_\_(2009), "El socialismo rentista de Venezuela ante la caída de los precios petroleros internacionales," *Cuadernos del Cendes*, Vol. 26, No. 71, pp. 67-87.
- Lupu, Noam(2010), "Who votes for Chavismo?,"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45, No. 1, pp. 7-32.
- Marchar, Oliver(2006), "En el nombre del pueblo la razón populista y el sujeto de lo político," *Cuadernos del CENDES*, Vol. 23, No. 062, Univ. Central de Venezuela, pp. 37-58.
- Marcano, Cristina(2007), "In Venezuela, Conditions for Building Socialism of the 21st Century have been created," <http://www.venezuelanalysis.com/print/2162>.
- Marquez, Trino(2004), "Presidencialismo, Autoritarismo y Culto a la personalidad(Hugo Chavez y el ejercicio del poder)," *Revista Venezolana de Análisis de Coyuntura*, Vol. 10, No. 2, pp. 57-77.
- Mejia Vergnaud, Andres(2009), *El destino trágico de Venezuela*, Bogotá: Tierra Firme.
- Mouzelis, Nicos(1978), "Ideology and Class Politics: A Critique of Ernesto Laclau," *New Left Review*, No. 11, pp. 45-61.



- Muller Rojas, Alberto(2001), *Época de Revolución en Venezuela*, Caracas: Solar.
- O'Donnell, Guillermo(1979), "Tensions in the Bureaucratic-Authoritarian State and the Question of Democracy," David Collier(ed.), *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pp. 285-318.
- Parker, Dick(2005), "Chávez and the Search for an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2, No. 2, pp. 39-49.
- Patruyo Thanalí(2006), "Comentarios a propósito de la visita de Ernesto Laclau. La razón populista: aproximación a los retos teóricos de un modelo redefinido," *Cuadernos del CENDES*, Vol. 23, No. 063, pp. 169-176.
- Ranciere, Jacques(2006), *Hatred of Democracy*, London: Verso.
- Retamozo, Martin(2006), "Populismo y teoría política: de una teoría hacia una epistemología del populismo para América Latina", *Revista Venezolana de Economía y Ciencias Sociales*, Vol. 12, No. 2, Caracas: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pp. 95-113.
- Santos, Boaventura de Sousa(2008), "Nuestra América. Hegemonía y Contrahegemonía en el siglo XXI," <http://sala.clacso.edu.ar/gsd1252/cgi-bin/library?e=q-000-00---0busca%2csecre>, pp. 1-39.
- Santos, Boaventura De Sousa & Avritzer, Leonardo(2005), "Introducción: para ampliar el canón democrático," *Democratizar la democracia*, México: Cfe, pp. 35-74.
- Serra, Jose(1979), "Three Mistaken Theses Regarding the Connection between Industrialization and Authoritarian Regimes," David Collier(ed.), *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pp. 99- 164.
- Viguera, Anibal(1993), "Populismo y Neopopulismo en América Latina,"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Vol. 55, No. 3, pp. 49-66.
- Wilpert, Gregory(2006), "The Meaning of 21st Century Socialism for Venezuela," <http://www.venezuelanalysis.com/print/1834>, pp. 1-10.

## 인터넷

"교조적 노동계급 숭배 단호하게 거절," *레디앙*(2012.2.3).

“츨스키, 암투병중인 ‘친구’ 차베스에 쓴 소리,” 프레시안(2011.7.4).

<http://www.rebelion.org/noticia.php?id=43079&titular=gobierno-desti>.

<http://venezuelanalysis.com/print/6962>

[http://www.el-nacional.com/noticia/33370/18/Fedecamaras-formalizara-ante-la OIT-](http://www.el-nacional.com/noticia/33370/18/Fedecamaras-formalizara-ante-la-OIT-)

<http://venezuelanalysis.com/print/6950>

<http://www.rebelion.org/noticia.php?id=148636>

<http://venezuelaanalysis.com/print/6971>

## 안 태 환

부산외국어대학교

tomy30@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2년 6월 13일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7일

# The Hugo Chávez government in the perspective of Laclau's Populism

**Tae-hwan Ah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hn, Tae-hwan (2012), The Hugo Chávez government in the perspective of Laclau's Populism.

**Abstract** The nature of academic discourse about populism is highly complex and indistinct. In most cases, this political ideology contains negative connotation, because in major populist discourses such as Gino Germani's, the leader sees the public as illogical and the subject of control and manipulation as a way of obtaining and maintaining their political power. Additionally, in different kinds of major populist discourses, such as Guillermo O'Donnell's, populism is regarded as a model that contributes to the nation's development by incorporating social classes at a certain transitional phase. Many experts criticize it for its imprecise, confusing, indecisive as well as the overuse of rhetoric. However, Ernesto Laclau interprets this ideology from a very different aspect. The basis of his claim starts with popular demand. This signifies interconnected, plural demands through the equivalential articulation by a variety of social actors. For instance, the people who had been socially isolated for a long time from the new liberalist economic policy of the Andres Perez government at the late 80s in Venezuela led heated street protests demanding for, not just economic, but also political and social issues, including education, health, women and social relations. From the Laclau's belief, this kind of popular demand signifies the appearance of the public that carries political meaning. This is aligned with Ranciere's idea, which the appearance of the people who were excluded in the course of the emergence of radical democracy is regarded as being political. These claims are confirmed in the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of the Venezuelan revolution that spurred by the leader and the people, that is, Chávez and Community Councils. In this sense, Caracazo serves as a starting poi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hávez government that combines populism with radical democrac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populism and the discourse of class struggle are different forms of interpretation of politics and society.

**Key words** Caracazo, popular demand, radical democracy, Community Councils

